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 히라노 신지 목사

작년여름 WH연맹 중고생 캠프로 한국을 방문했을때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연구소 소장인 박명수목사로부터 니시고리 히로시 목사와 소기호목사를 통해서 한일 쌍방의 교단사에 관한 공부모임을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제의를 받고 2008년 1월 21~22일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연구소와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의 주체로 동경성서학원과 역사편집위원회의 공동개최에 의한 「한일 역사공동연구회」가 동경성서학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2명이 오시고 일본측 출석자를 포함해서 총 30여명의 참가자들에 의한 의미있는 연구발표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 역사에 관한 공부모임

2일동안 6개의 연구발표가 있었고 한국측에서는 「세계성결운동과 한국성결교회」(박명수목사) 「중앙성결교회가 한국성결교회에 미친 영향」(장금현목사 중앙성결교회목사) 「제일 한국인 성결교회의 선교역사」(배덕만목사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교회사) 일본측에서는 「일본홀리네스교단사 개관(1901~36)」(야마다 토모아키목사) 「일본홀리네스사 개관(1936~49)」 「일본홀리네스교단의전쟁책임고백」(카미나카 사카에목사) 「동경성서학원의 역사와 현상황」(니시오카 요시유키목사) 을 발표하였습니다.

2. 성결교회의 견실한 역사연구

일본에서는 지난 달의 교단 월간지인 『리바이블』에서 소개된 아시다 미치오목사의 『나카다 류지와 성결신앙』(07년 5월 출판) 등에 의해서 겨우 알려지게 된 「동양선교회와 그 것에 의해서 생긴 모든 교단의 기원을 미국의 만국성결운동에서 본다」라고 하는 시점이 한국의 교회사연구에서는 이미 20년 가까이 전부터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하면 뜨거운 기도나 큰 교회 라고 하는 이미지가 앞서 가지만 이 번의 모임을 통해서 역사연구의 분야에 있어서도 크게 뒤져 있다는 감을 가졌습니다.

3. 역사연구회에 있어서의 교제와 이후의 기대

22일에는 교단이 주최하는 만찬회가 열려서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식사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번 모임에는 소기호목사와 일본에 온 이래 교분이 있으며 홀리네스교단사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계신 홈마 요시노부목사(웨슬레안홀리네스교단 타마가와중앙교회목사)가 출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WH연맹의 틀을 넘어선 교제가 되었습니다.

연구발표가 모두 끝난후에 간담회를 갖고 금후 이 모임을 계속해서 개최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칭은 「한일성결교회 역사연구회」로 하고 제2회 모임을 2008년 여름경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쌍방에서 선출된 코디네이터(일본측·히라노 신지)를 통해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임과 교제에 있어서 모든 통역과 공항의 마중과 전송 관광안내 까지 담당해 주신 소기호목사의 많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